

장인이 만든 합죽선 무주서 만난다

최북미술관서 내달 2일까지 다산 김동식 장인 합죽선 37점 작품 전시

합죽선으로 대를림에 선봉장으로 선 김동식 장인(匠人)이 무주에서 작품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나무 한을 한을 다듬어서 만들어 진 합죽선은 경이로울 정도로 빼어난 작품이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부채를 만드는 기능을 보유한 장인)인 다산 김동식 장인이 출품한 '비림이 분다' 기획전이 무주군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이번 기획전에는 김동식 장인이 정성 들여 만든 합죽선 37점이 전시돼 사라져 가는 부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동근 바퀴 모양 형상의 합죽선(조선시대 궁중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현하여 제작)을 비롯해 뽕나무에서 추출한 물로 염색한 한지 합죽선, 비단실크로 제작된 합죽선 등 다양한 합죽선들이 선보이고 있다.

합죽선 제작 공정은 까다롭고 손이 많은 작업을 거쳐야 한다. 대나무 진을 빼는 과정에서부터 사복(부채 머리)을 고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처리 과정까지 총 17개의 공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기계의 혜택을 외면하고 그 옛날 외조부가 했던 합죽선 제작 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유일한 장인.

예전에는 합죽선을 만들기 위해 팔선부와 수장부로 나뉘고 합죽방과 도배방 등 6방으로 나누어 분업화가 됐을 정도로 부채 산업이 활발했다. 현재는 전통문화의 침체로 인해 모든 공정이 김동식 장인이 직접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지정되면서 합죽선의 원형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금은 사라지고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합죽선을 재현하는 모



국가 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부채를 만드는 기능을 보유한 장인)인 다산 김동식 장인이 출품한 '비림이 분다' 기획전이 무주군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가 합죽선 장인 대열에 손 꼽히는데는 가족의 이력을 볼 때 충분히 감지된다.

그의 외조부는 고종 황제에게 합죽선을 진상할 만큼 뛰어난 합죽선 장인이었으며, 김동식 장인은 외가의 기업을 4대째 대물림하고 주인 공이다. 그의 아들 김대성(1975~)이 5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식 장인은 "공기가 좋은 무주지역에서 자신의 합죽선 작품을 군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 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무주군민들에게 선 보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기획행사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 동안 초등학교생을 비롯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무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합죽선 도배체험(종이 접어서 부채 살에 붙이기)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 출신인 김 장인은 지난 2016년 이탈리아 피렌체 포르테차 다바소 국제수공예 박람회 참가, 2017년 중국 국립 소주박물관 전시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인사이드센터에서 '합죽선 60년 전시' 등 국내외 전시장을 통해 발군의 합죽선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최북미술관과 전주 부채문화관이 공동 주최로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COVID-19 K-ART SPIRIT 특별전

JeMA전주현대미술관, 30일까지 회화·설치·뉴미디어 부문 전시

JeMA전주현대미술관에서 2021년 첫 기획전을 갖는다. 이 전시는 COVID-19 K-ART SPIRIT -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특별작가 초대전을 연다.

강희원, 박영숙, 송정숙, 윤현구, 이정란, 차경진 작가가 참여, 13일~30일까지 회화, 설치, 뉴미디어 부문으로 전시된다.

Covid-19 Art Spirit 특별전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픈 시련기를 겪고 있다.

특히 미술분야의 작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활동도 작가의 혼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와 작가가 소통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특별한 전시를 기획하고 대중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어려운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K-ART SPIRIT'은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서 우울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극복의 메시지를 주고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예술적 공감각제인 작품을 통해 전주지역의 작가와 서울지역 작가가 만나 지역성을 탈피하고 상호 작가정신을 교감, 새로운 도약의 확장성을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작가들이 보다 확대된 작품성을 발휘시키고 전국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 전시다.

동시에 많은 국민과 작가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치유의 기회를 만들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아트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국내 지역작가들의 미술생태계는 지역적인 변방작가에서 탈피되는 새로운 질서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전시를 기반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작가 발굴을 통해 글로벌 작가로의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이벤트가 될 것이다.

관람객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과 동시에 차세대 예술가들을 발굴해 국제적인 작가로의 도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해외 미술시장에 참가해 활동력을 키우고 세계 수준의 작가를 만드는 전문 'Art Agency 미술관'으로써의 창구역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로와 치유를 위한 미학'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의 미학적 공감을 소통하고 어려운 시대에 상처받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획 전시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춘향국악대전 참가자·평가단 모집

춘향제전위원회, 3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춘향제전위원회는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 참가자와 판소리 명창부 청중평가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국악대전은 5개 분야 13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종목은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학생부) ▲무용(일반부, 학생부) ▲민요(일반부, 학생부) ▲기악(일반부, 학생부) ▲기악 현악·병창(일반부, 학생부) 부문이며, 코로나19로 예선은 비대면 심사(판소리 명창부는 대면)로 진행되고, 본선은 안숙선명창의여정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및 e-mail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는 춘향제 홈페이지(<http://www.chunhyang.org/>)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춘향제전위원회 국악대전운영팀(063-620-57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판소리 명창부 청중평가단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형식으로, 심사위원 이외에 만 20세이상 4년제 국악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20명을 모집



비대면으로 열린 제47회 국악대전 모습.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은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주말(토, 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안숙선명창의여정과 함파우소리체합관에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공예 장인학교' 개강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21 한국공예 장인학교'가 지난 1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13일 밝혔다.

'2021 손의 도시 전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국공예 장인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심화반이 추가됐으며, 2년 교육과정의 학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기초반은 4개 분야·총 20명 모집에 45명이 신청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 개별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장인학교는 ▲전통목조각 ▲색지 공예 ▲부채(단선) ▲전통섬유(침선) 분야의 전문 공예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초반 수업 28주, 심화반 수업 28주 총 52주로 2년간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에는 전통목조각을 맡은 김종연(무형문화재 제58호) 장인을 비롯해 색지장 김해미자(무형문화재 제60호) 장인, 선자장 방화선(무형문화재 제10호) 장인, 전통섬유 분야 박순자(침선,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장인이 참여한다.

교육생은 주 3시간씩 장인에게 1대 1 도제식 교육을 통한 전통 공예 기술을 전수받으며, 기초반 이수자는 이후 진행되는 심화반 수업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뉴시스



특히 올해는 공예산업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겸비한 수공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장인학교 교과목으로 전통공예 기술은 물론 전통공예 이론,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의 교육과정을 추가했다.

교육과정을 전담하는 김혜원 공예문화산업팀장은 "한국공예 장인학교 입학에 축하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이수 기간 불편함 없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문화산업팀(063-282-8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